

SPORTS “국제대회 개인전 첫 메달... 최고 자리 오를 것”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김제덕, 리커브 남자 개인전 3위 결정전서 이탈리아 7-3 제압 “아시안게임 선발 목표”... 여자 대표팀은 12일 개인전 최종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국제대회 개인전 첫 메달 획득이라 기쁘니.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금메달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한 김제덕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제덕은 11일 광주 5·18 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리커브 남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마테오 보르사니(이탈리아)를 7-3(29-29 30-29 28-27 28-30 29-28)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김제덕은 생애 처음으로 국제대회 개인전 시상대에 올랐다.

김제덕은 그동안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만 9개를 따냈다. 이는 모두 남자·혼성 단체전에서 따낸 결과였다.

2020 도쿄올림픽이 열린 2021년 17세의 나이로 국가대표 1군에 선발된 김제덕은 굼직한 대회에서 꾸준히 활약했지만, 개인전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우진이 32강에서 조기에 탈락하고 이우석마저도 이날 16강에서 패하며 김제덕이 홀로 대진표에 남았다.

극심한 부담감에 시달렸을 때도 하지만 김제덕은 이를 극복하고 한국 남자 리커브 양궁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김제덕은 준결승전에서는 안드레 테미노(스페인)에게 4-6(29-29 28-29 28-28 30-29 29-30)으로 져 3위 결정전으로 밀렸다.

앞서 8강에서는 당준준(대만)을 7-1(29-27 30-30 29-28 29-27)로, 16강에서는 가와타 유키(일본)를 7-1(29-25 29-27 28-28 30-29)로 제압했다.

몸 상태가 나빠 전날 밤 고열에 시달린 이우석(코오롱)은 이날 16강전에서 마티아스 그라데(멕시코)에게 2-6(28-29 29-27 27-28 26-29)으로 패해 메달 도전을 일찍 마쳤다.

김제덕은 이날 동메달을 따낸 후 “결과와 상관없이 즐거운 경기였다. 그동안 준비했던 과정을 잘 보여줬던 것 같다”면서 “오전에 같은 팀 선수들이 탈락했지만, 저에게 조인을 많이 해줬던 것이 도움이 됐다. 많은 관중분들이 찾아와 크게 응원을 해주셔서 더욱 자신감이 생겼고, 이에 메달을 따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솔한 탈락을 맞았던 김제덕은 이날 동메달로 설움을 떨쳐냈다.

그는 “그동안 세계선수권에서 준골 8강에서 탈락했다. 유독 인연이 없었던 게 세계선수권이었지만, 오늘로 부담을 털어내게 됐다”면서 “이번 대회가 스스로 더 성장할 기회가 된 것 같다. 아직 국제대회 금메달이 없는데, 오늘의 경험을 발판삼아 다음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따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세계선수권 대회 일정을 마친 그의 다음 목표는 아시안게임이다.

김제덕은 “다음 큰 대회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이다. 어떻게든 선발전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다”면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커리어가 끝이 아닌 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큰 선수가 되는 게 앞으로의 목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경기를 치른 여자 대표팀은 전원 개인전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먼저 안산(광주은행)은 누리소 마흐무도바(개인종합자격선수)를 7-1(29-26 27-24 27-27 28-25)로 가볍게 따돌렸다.

1세트에서는 10점 2발과 9점을 꽂아넣으면서 우위를 점했다. 2세트는 연달아 10점을 쓴 뒤 7점을 기록했지만, 상대도 7점을 만들면서 세트를 온전히 따냈다. 3세트 무승부 이후 4세트를 따낸 안산은 16강에 안착했다.

강제영(현대모비스)은 아멜리 코르도(프랑스)를 6-4(28-26 28-29 29-27 28-29 28-26)로 제압했다.

4세트까지 4-4 동점을 이뤘던 강제영은 5세트 9점 2발과 10점을 꽂아넣으면서 승리했다.

임시현(한국체대)도 앙키타 바카르(인도)를 6-2(28-28 30-27 30-28 28-28)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임시현은 1세트 9점 두 발로 동점. 그러나 2·3세트에서 모두 10점을 적중시키는 맹활약을 펼치면



1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광주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남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김제덕이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 **홍남**

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4세트에서는 9점 두 발을 썼지만 상대의 등불을 이루면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번 대회 마지막 일정인 여자 개인전 결승은 12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이날까지 한국 리커브 대표팀이 따낸 메달은 4개

(금 1·은 1·동 2)다. 리커브 대표팀은 전날 남자 단체전 금메달, 혼성전 은메달,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수확했다.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에서 최용희(현대제철)가 따낸 동메달을 더하면 한국 양궁 대표팀이 따낸 메달 수는 총 5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장애인체육회, 장애학생체육 발전 간담회 개최

특수학교 교사 등 80여명 참석... 거점형 체험학교 운영 등 논의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0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광주장애학생체육 발전방향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정선 교육감,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현성 광주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특수학교 교사 및 시·구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장애학생·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이라는 교육철학 아래 광주 장애학생체육 선수 지원에 힘쓰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에게 임직원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 전달을 시작으로 본량중

학교(장애인육상 훈련장) 트랙·필드 추가 설치 건의, 특수학교 운동부 전담지도자 배치 요청, 장애학생 맞춤형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폐교 부지 이용 거점형 체험학교 운영 검토 요청, 품드립 바꾸어 사용처 확대 건의 등 장애학생 체육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바쁜 시간에도 광주 장애학생체육 발전을 위해 자리해주신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장애학생체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장애학생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장애인육상 전용 훈련장 확보를 위해 본량중학교 운동장 개보수를 통한 투척 훈련장 조성에 앞장선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 트랙·필드 추가 설치로 장애인 전용 육상훈련장 확보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유도, 국제무대에서 ‘금·동’ 획득 쾌거

양창일, 100kg이상급 우승... 신지영, 78kg이상급 중국 제압

전남 유도가 국제무대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1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2025 항저우 아시아 오픈 유도대회’에서 전남 유도 소속 양창일(세한대·+100kg급)과 신지영(순천시청·+78kg급)이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양창일은 +100kg급 결승전에서 호주 선수를 상대로 첫 판 업어치기와 누르기연속 특점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두 번째 판에서는 상대에게 점수를 내줬으나 마지막 판에서 받다리 되치기와 업어치기로 승부를 결정지어 금메달을 따냈다.

양창일은 이번 우승으로 랭킹포인트 100점을 확보하며 +100kg급 세계랭킹 136위에 올랐다.

신지영도 여자 +78kg급에 출전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지영은 1회전에서 중국의 선사오한을 상대로 감아치기 유효, 업어치기 되치기 절반을 기록하며 완승을 거뒀다.

이어 2회전에서는 아쉽게 패했으나,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상 시오한(중국)을 상대로 받다리 되치기 절반과 받다리 절반으로 값진 승리를 챙겼다. 그 결과 랭킹포인트 50점을 확보, 세계랭킹 145위에 안착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각국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로, 전남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월등한 기량을 발휘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김효수 전남도유도회 회장은 “이번 메달은 선수들의 꿈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며 “전남 유도가 앞으로도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청 육상 이재성, KIA 승리기원 시구

17일 한화전서 시구... “남은 경기서 모두 승리하길”

KIA타이거즈가 오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광주시청 소속 육상선수 이재성을 시구자로 초청한다.



이재성은 KIA타이거즈 시구를 하게 돼 기쁘고 영광이다”면서 “시구에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시구자를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성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남자 400m 계주 금메달과 남자 2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총 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계주에서 획득한 금메달은 대한민국 육상 역사상 국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성료

광주시체육회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마무리했다.

1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매년 대한체육회 기금(총 4600만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이번 대회에는 연식야구, 티볼, 플로어볼, 탁구 등 4개 종목에 총 103개 팀 16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번 스포츠클럽 대회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출전하기 위한 예선전이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침당야구장, 무등야구장, 일선학교 등 중

목별로 진행했다. 대회 우승팀은 오는 10~11월 중 전국에서 종목별로 분산 개최되는 제18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전감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학교체육은 곧 꿈나무들의 근간이며, 학교체육의 발전은 광주의 미래를 밝고 건강하게 한다”며 “청소년스포츠한마당과 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가 ‘2025년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은 티볼경기를 준비하는 학생들.